

「흑백 사진 - 7월」 _ 정일근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내 유년의 7월에는 냇가 잘 자란 미루나무 한 그루 솟아오르고 또 그 위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내려와 어린 눈동자 속 터져나갈 듯 가득 차고 찬물들은 반짝이는 햇살 수면에 담아 침 없이 흘러갔다.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착한 노래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가버리면 과수원을 지나온 달콤한 바람은 미루나무 손들을 흔들어 차르르 차르르 내 겨드랑에도 간지러운 새 잎이 돋고 물 아래까지 헤엄쳐가 누워 바라보는 하늘 위로 뻘뻘뻘 헤엄쳐 달아나던 미루나무 한 그루. 달아나지 마 달아나지 마 미루나무야, 귀에 들어간 물을 뿜으려 햇살에 데워진 둥근 돌을 골라 귀를 가져다 대면 허기보다 먼저 온몸으로 퍼져오던 따뜻한 오수*, 점점 무거워져 오는 눈꺼풀 위로 멀리 누나가 다니는 분교의 풍금소리 쌓이고 미루나무 그늘 아래에서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깜빡 잠이 들었다.

- 정일근, 「흑백 사진 - 7월」

*오수: 낮에 자는 잠.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화자가 유년 시절에 경험한 일을 다양한 감각적 심상과 비유적 표현으로 그려 내고 있다. 유년 시절 화자의 눈에 비친 여름날의 냇가 풍경, 그 속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천진난만함, 자연물(미루나무)에 동화되는 화자의 상태, 아이의 혼잣말, 오수에 빠져드는 과정 등이 어우러지면서 평화로운 유년의 기억을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

- 내 유년의 ~ 흘러갔다.
: 물놀이를 하던 시냇가의 풍경
- 냇물아 ~ 미루나무 한 그루
: ‘나’의 눈에 비친 미루나무의 모습
- 달아나지 마 ~ 잠이 들었다
: 물놀이에 지쳐 오수에 빠져드는 ‘나’의 모습

✓ 주제 :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

- ① ‘7월’과 ‘더위’를 통해 여름의 계절이 드러나는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 ‘깜빡’을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화자가 잠이 드는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깜빡 잠이 들었다’에서 활유법을 활용하여 화자와 자연의 일체감(‘7월’=화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냇가’는 화자가 보냈던 유년의 평화로움(물놀이, 낮잠자는 모습 등)을 보여 주는 과거의 공간이다.
- ⑤ 화자가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유년 시절 자신의 눈동자 속으로 내려와 눈동자가 터져 나갈 듯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연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자연에 대해 화자가 가진 친밀감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T H E - 깊 은 독 해]

내 유년의 7월에는

→ 화자 ‘나’가 제시되어 있다. 화자는 유년 시절의 7월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려고 하고 있다. 다음에는 화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 7월을 생각 하던 떠오른 것들에 제시될 것이다. 회상적 성격이 드러난다.

넷가 잘 자란 미루나무 한 그루 솟아오르고 또 그 위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내려와

→ 자연물을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마치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미루나무, 파란 하늘, 뭉게구름 등은 화자의 유년 시절 기억에 남아 있는 자연 풍경이다. 이때 ‘넷가’는 화자의 유년 시절 추억의 공간이다.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에는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가 나타나 있다. ‘솟아오르고’, ‘내려와’에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어린 눈동자 속 터져나갈 듯 가득 차고

→ 자연 경관이 눈에 가득 들어온 상황이다.

찬물들은 반짝이는 햇살 수면에 담아 씩없이 흘러갔다.

→ 햇살이 반짝이며 시냇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회상하고 있다.

▶시냇가의 풍경

넷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 동요 가사를 인용하여 동심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착한 노래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 가버리면

→ 시냇물이 흘러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때 ‘착한 노래들’은 시냇물 소리를 의인화한 표현이다. 공감각적 표현(청각의 시각화) 또한 사용되어 있다.

파수원을 지나온 달콤한 바람은 미루나무 손들을 흔들
어 차르르 차르르

→ 바람에 미루나무 잎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달콤한 바람’은 공감각적 표현(촉각의 시각화)이다. ‘미루나무 손’은 미루나무 잎을 의인화한 표현이다. ‘차르르 차르르’는 미루나무 잎들이 흔들리는 소리를 나타낸 의성어(음성 상징어)이다.

내 겨드랑이에도 간지러운 새 잎이 돋고

→ 미루나무 잎들이 바람에 살살 흔들리는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화자는 자신을 미루나무와 동일시하여 자신의 겨드랑이에도 새 잎이 돋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 것이다. 자연물과 동화된 심리가 나타난다.

물 아래까지 헤엄쳐가 누워 바라보는 하늘위로 뻗돌뻗돌
헤엄쳐 달아나던 미루나무 한 그루.

→ 화자가 물에 누워서 배영으로 헤엄치며 바라본 미루나무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화자가 물속에 흔들리며 미루나무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뻗돌뻗돌 헤엄쳐 달아’난다고 나타낸 것이다. (또한 미루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미루나무 풍경

달아나지 마 달아나지 마 미루나무야.

→ 화자가 미루나무에 건넨 말이다. ‘미루나무’를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는 자기 세계에 빠져 혼자 중얼거리는 말일 것이다. ‘달아나지 마 달아나지 마’라는 표현에는 자연물과 일체되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귀에 들어간 물을 뿜으려 햇살에 데워진 둥근 돌을 골라
귀를 가져다 대면

→ 둥근 돌을 귀에 대고 머리를 기울여 살살 두드리듯 하면 귓속에 들어간 물이 빠져나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데워진’이라는 촉각적 표현이 사용되어 있다.

허기보다 먼저 온몸으로 퍼져오던 따뜻한 오수.

→ (화자가 헤엄치면서 놀다가) 배고픔보다는 나른하게 전해져 오는 졸음을 더 느끼는 상황이다.

점점 무거워져 오는 눈꺼풀 위로 → 졸음이 물려오던 상황

멀리 누나가 다니는 분교의 풍금소리 쌓이고

→ 여기서 분교의 모습은 ‘멀리’라고 했으므로 원경에 해당한다. ‘소리가 쌓인다’는 표현은 청각의 시각화로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미루나무 그늘 아래에서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깜박 잠이 들었다.

→ 화자의 공간적 위치와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실제로 잠이 든 것은 화자인데, ‘7월은 잠이 들었다’라고 하여, 화자 자신과 7월을 동일시하여, 주객전도식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7월은 더위를 잊었다’는 표현은 활유법에 해당한다. 자연과 일체된 화자의 평화로운 모습, 천진한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오수에 빠져드는 ‘나’

#‘흑백 사진’의 의미

이 시에서 ‘흑백 사진’은 유년 시절의 아련한 추억을 의미한다. 흑백 사진은 색이 없고 남은 건 흑백의 흔적뿐이다. 이는 독자들에게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데 효과적이다. ‘흑백 사진 - 7월’이라는 제목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유년 시절을 추억하게끔 한다. 흑백 사진은 독자들에게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흑백을 통해 떠올린 유년의 추억은 현실의 컬러보다 더 큰 정서적 반응을 일으킨다. 또한 ‘7월’은 화자가 추억하는 자족적 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으며,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동원하여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 주기 에 가장 적합한 계절이 7월로 대표되는 여름이기 때문이다. 시인은 이러한 제목을 통해 사람들 각자가 지니고 있는 추억의 여백을 상상을 통해 채워나가길 바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능적 독해 Point]

- 화자 : 화자 ‘나’가 걸으로 드러나 있음 [유년을 회상하는 이]
- 상황 : 어린 시절 7월에 넷가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다가 나와서 미루나무 아래에서 깜박 잠이 들었던 일을 회상함
- 정서·태도 : 회상,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자연물과의 일체감

[연 관 - 기 출 문 제]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

[A] <굽은 길은 굽게 가고 / 곧은 길은 곧게 가고>

[B]

<막판에는 나를 싣고 / 가기로 되어 있는 차가

제시간보다 일찍 떠나는 바람에

걸지 않아도 좋을 길을 두어 시간

땀 흘리며 걸기도 했다>

[C]

<그러나 그것도 나쁘지 아니했다

걸지 않아도 좋을 길을 걸었으므로>

만나지 못할 뻔했던 싱그러운

㉠ 바람도 만나고 수풀 사이

빨강게 익은 명석딸기도 만나고

해 저문 개울가 고기비늘 찢으러 온 물총새

물총새, 쪽빛 나뭇잎도 보았으므로

[D]

<이제 날 저물려고 한다

길바닥을 떠돌던 바람도 잠잠해졌고

새들도 머리를 숲으로 돌렸다>

[E] <오늘도 하루 나는 이렇게 / 잘 살았다>

- 나태주, 「사는 일」-

(나)

내 유년의 7월에는 냇가 잘 자란 미루나무 한 그루 솟아오르고 또 그 위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내려와 어린 눈동자 속 터져 나갈 듯 가득 차고 찬물들은 반짝이는 햇살 수면에 담아 쉽 없이 흘러갔다.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착한 노래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가 버리면 과수원을 지나온 달콤한 ㉡ 바람은 미루나무 손들을 흔들어 차르르 차르르 내 겨드랑에도 간지러운 새잎이 돋고 물 아래까지 헤엄쳐가 누워 바라보는 하늘 위로 뻗돌뻗돌 헤엄쳐 달아나던 미루나무 한 그루. 달아나지 마 달아나지 마 미루나무야, 귀에 들어간 물을 뿜으려 햇살에 데워진 둥근 돌을 골라 귀를 가져다 대면 허기보다 먼저 온몸으로 퍼져 오던 따뜻한 오수, 점점 무거워져 오는 눈 꺼풀 위로 멀리 누나가 다니는 분교의 풍금 소리 쌓이고 미루나 무 그늘 아래에서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깜박 잠이 들었다.

- 정일근, 「흑백 사진-7월」-

1. 제목과 관련지어 (가)의 [A]~[E]를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는 일’을 수용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
- ② [B]: 돌발적인 상황을 언급하여 ‘사는 일’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어.
- ③ [C]: 시상의 전환을 통해 ‘사는 일’에서 인식하게 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 ④ [D]: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사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 ⑤ [E]: 첫 연의 시작 부분과 호응하는 마무리를 통해 ‘사는 일’에 대한 긍정적 판단을 부각하고 있어.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에게 공허감을, ㉡은 충족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의 방향을 유발하는, ㉡은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대상이다.
- ③ ㉠은 화자에게 지속적인 위로를, ㉡은 일시적인 위로를 주는 대상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에게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에게 긍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3. 다음은 (나)를 UCC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면 1] - 시작 화면은 흑백 영상으로 처리한다. - 자막으로 제목과 시인의 이름을 소개한다.	
[장면 2] - 낭송이 시작되면 화면에 서서히 색채감이 드러나도록 구성한다. - 화면은 미루나무, 파란 하늘, 뭉게구름 등이 어우러지도록 제작한다. - 자막은 '내 유년의~심 없이 흘러갔다'까지 스크롤 처리하여 진행시킨다.	[장면 3] '넋물아 흘러 흘러'를 낭송하는 부분에서 해당 동요를 효과음으로 넣는다. - 낭송이 진행됨에 따라 강물을 따라가며 이동하는 듯한 시각적 장면 효과를 준다. - 자막은 '넋물아 흘러~미루나무 한 그루.'까지 스크롤 처리하여 진행시킨다.
[장면 4] '달아나지 마'를 낭송할 때는 미루나무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로 시를 낭송 한다. - 배를 쓰다듬으며 데워진 돌을 귀에 대는 어린아이의 표정을 클로즈업하여 촬영한다. - 자막은 '달아나지 마~따뜻한 오수'까지 스크롤 처리하여 진행시킨다.	[장면 5] - 풍금 소리를 효과음으로 사용한다. - 원경으로 학교의 모습을, 근경으로는 미루나무 그늘에 누워 낮잠을 자는 아이의 모습을 담는다. - 자막은 '점점 무거워져~잠이 들었다.'까지 스크롤 처리하여 진행시킨다.
* 주의할 점 - 화면의 움직임은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다. - 낭송, 화면 구성 및 음향 효과는 시의 내용과 표현에 따른다.	

- [장면 1]은 명암의 대비를 활용해 제목의 느낌을 살리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느껴지는 군.
- [장면 2]는 색채감을 활용해 화자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이미지를 선명하게 제시해 보려는 의도가 느껴지는 군.
- [장면 3]은 장면 효과를 활용해 자연과 동화되어 즐겁게 뛰어다녔던 유년의 한때를 다채롭게 구성하려는 의도가 느껴지는 군.
- [장면 4]는 촬영 기법을 활용해 유년의 순수함 이면에 더불어 존재했던 배고픔의 경험을 회상하는 화자의 회한을 담아 보려는 의도가 느껴지는 군.
- [장면 5]는 화면의 정경을 활용해 유년의 평화로운 한때를 잔잔하게 회상하는 작품의 취지를 형상화해 보려는 의도가 느껴지는 군.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유년의 7월에는 ㉠ 냇가 잘 자란 미루나무 한 그루 솟아오르고 또 그 위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내려와 어린 눈동자 속 터져 나갈 듯 가득 차고 찬물들은 반짝이는 햇살 수면에 담아 쉽 없이 흘러갔다. ㉡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착한 노래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 가 버리면 과수원을 지나온 달콤한 바람은 미루나무 손들을 흔들며 ㉢ 차르르 차르르 내 겨드랑에도 간지러운 새잎이 돋고 물아래까지 헤엄쳐 가 누워 바라보는 하늘 위로 뻗돌뻗돌 헤엄쳐 달아나던 미루나무 한 그루. ㉣ 달아나지 마 달아나지 마 미루나무야, 귀에 들어간 물을 뽑으려 햇살에 데워진 둥근 돌을 골라 귀를 가져다 대면 허기보다 먼저 온몸으로 퍼져 오던 따뜻한 오수*, ㉤ 점점 무거워져 오는 눈꺼풀 위로 멀리 누나가 다니는 분교의 풍금 소리 쌓이고 미루나무 그늘 아래에서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깜박 잠이 들었다.

- 정일근, 「흑백 사진 - 7월-」

* 오수(午睡): 낮잠.

(나)

길 복판에서 6, 7인의 아이들이 놀고 있다. 적발동부(赤髮銅膚)*의 반나군(半裸群)이다. 그들의 혼탁한 안색, 흘린 콧물, 돌든 베두랭이, 벗은 옷통만을 가지고는 그들의 성별(性別)조차 거의 분간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여아가 아니면 남아요 남아가 아니면 여아인 결국에는 귀여운 5, 6세 내지 7, 8세의 '아이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아이들이 여기 길 한복판을 선택하여 유희하고 있다.

돌멩이를 주워 온다. 여기는 사금파리도 벽돌 조각도 없다. 이 빠진 그릇을 여기 사람들은 버리지 않는다.

그러고는 풀을 뜯어 온다. 풀- 이처럼 평범한 것이 또 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초록빛의 물건이란 어떤 것이고 간에 다시없이 심심한 것이다. 그러나 하는 수 없다. 곡식을 뜯는 것도 금제(禁制)니까 풀밖에 없다.

돌멩이로 풀을 짓찧는다. 푸르스레한 물이 돌에 가 염색된다. 그러면 그 돌과 그 풀은 팽개치고 또 다른 풀과 다른 돌멩이를 가져다가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 한 10분 동안이나 아무 말이 없이 잠자코 이렇게 놀아 본다.

10분 만이면 권태가 온다. 풀도 싱겁고 돌도 싱겁다. 그러면 그 외에 무엇이 있나? 없다.

그들은 일제히 일어선다. 질서도 없고 충동의 재료도 없다. 다만 그저 앉았기 싫으니까 이번에는 일어서 보았을 뿐이다.

일어서서 두 팔을 높이 하늘을 향하여 쳐든다. 그리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 본다. 그러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들 경중경중 똥다. 그러면서 그 비명을 겸(兼)한다.

나는 이 광경을 보고 그만 눈물이 났다. 여복하면 저렇게 놀까. 이들은 놀 줄조차 모른다. 어버이들은 너무 가난

해서 이들 귀여운 아기들에게 장난감을 사다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뻗히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는 그들의 유희가 내 눈에는 암만해도 유희같이 생각되지 않는다. 하늘은 왜 저렇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푸르냐, 산은 벌판은 왜 저렇게 어제도 오늘도 푸르냐는 조물주에게 대한 저주의 비명이 아니고 무엇이라.

아이들은 짓을 줄조차 모르는 개들과 놀 수는 없다. 그렇다고 모이 찻느라고 눈이 벌건 닭들과 놀 수도 없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너무나 바쁘다. 언니 오빠조차 바쁘다.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노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놀아야 하나, 그들에게는, 장난감 하나가 없는 그들에게는 영영 엄두가 나서지를 않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듯 불행하다.

그 짓도 5분이다. 그 이상 더 길게 이 짓을 하자면 그들은 피로할 것이다. 순진한 그들이 무슨 까닭에 피로해야 되나? 그들은 우선 싱거워서 그 짓을 그만둔다.

그들은 도로 나란히 앉는다. 앉아서 소리가 없다. 무엇을 하나. 무슨 종류의 유희인지 유희는 유희인 모양인데— 이 권태의 왜소(矮小) 인간들은 또 무슨 기상천외의 유희를 발명했나.

5분 후에 그들은 비키면서 하나씩 돌씩 일어선다. 제각각 대변을 한 무대기씩 누어 놓았다. 아— 이것도 역시 그들의 유희였다. 속수무책의 그들 최후의 창작 유희였다. 그러나 그중 한 아이가 영 일어나지를 않는다. 그는 대변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그는 이번 유희의 못난 낙오자임에 틀림없다. 분명히 다른 아이들 눈에 조소(嘲笑)의 빛이 보인다. 아— 조물주여, 이들을 위하여 풍경(風景)과 완구(玩具)를 주소서.

- 이상, 「권태(倦怠)」-

* 적발동부: 뺨뺨 짙은 머리에 구릿빛 피부. '적발'은 대머리를 뜻하는 '독발(禿髮)'의 오기라는 견해도 있음.

4. (가)의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감각적 심상을 통해, 유년 시절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자연 풍경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은 무정물을 의인화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시간의 경과를 암시하고 있다.
- ③ ㉡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자연물에 동화된 화자의 마음 상태를 그려 내고 있다.
- ④ ㉡은 혼잣말을 반복하는 방식의 진술을 통해, 유년 시절의 화자가 놀이에 몰입되어 있는 동심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은 공감각적 심상을 동원하여, 유년 시절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현재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5. (나)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갈등의 생성과 변화, 해소의 과정을 서술자의 개입 없이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 ② 전지적 서술자를 통해 허구적인 인물의 행동과 내면 심리를 설명하고 논평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③ 농촌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허구적인 이야기를 과거형의 서술을 통해 이미 완결된 사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아이들의 '놀이' 과정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농촌의 권태로운 일상을 바라보는 작자의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실제 작자와 일치하는 '나'의 실제 경험을 통해, 비참한 현실에 놓인 농촌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6.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후 학습 활동을 하였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보기>

「권태」에서 작자 이상(李箱)은 도시인의 시선으로 농촌에서의 일상을 그려 낸다. (나)에서 작자는 농촌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한 후, ㉠ 개성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 놀이를 해석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의 '똥 누기 놀이'를 서술하는 장면에서는 ㉡ 작자 특유의 기지와 해학이 돋보이는 표현으로 인물들을 그려 내어 독자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해당 장면 혹은 표현	판단의 이유
㉠	'하늘은 왜 저렇게~저주의 비명이 아니고 무엇이라.'	
㉡	'기상천외의 유희', '아—조물주여, 이들을 위하여 풍경과 완구를 주소서.'	

[All-바르게 확인하는 정답 및 해설]

1.

[정답 SCAN] ④

- ④ [D]는 고단했던 하루가 저물어 가는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새들이 휴식을 취하러 숲으로 가듯 화자도 휴식을 취하러 돌아가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한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SCAN]

- ① 1연의 2행과 3행의 대구를 통해 주어진 모양의 길을 걷듯 삶 역시 주어진 대로 살아가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버스가 제시한보다 일찍 떠나 버스를 놓치게 되는 돌발적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계획과 다른 상황을 겪을 수 있는 삶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화자는 걷지 않아도 될 길을 땀 흘려 걸어야 했지만, ‘그러나’ 이후에서 그것을 통해 얻게 된 긍정적인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 ⑤ 1연 첫 행의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와 호응하는 유사한 시구를 작품의 마지막에 배치하여 반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부각하고 있다.

2.

[정답 SCAN] ⑤

- ⑤ ㉠은 화자에게 ‘나쁘지 않았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고, ㉡은 유년의 기억에 대한 ‘달콤함’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오답 SCAN]

- ① ㉠은 화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소재이므로 ‘공허감’과는 거리가 멀다.
- ② ㉡을 통해 화자는 ‘싱그러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방향을 유발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 경우, 화자가 ‘달콤함’을 느끼고 있지만 이것이 갈등 해소로 인한 것은 아니다.
- ③ ㉡의 경우, 버스가 일찍 떠났기 때문에 만나게 된 대상이다. 따라서 이를 지속적인 위로로 주는 대상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 ④ ㉠과 ㉡은 화자가 일상에서 만난 자연 속의 대상이다. 따라서 이를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정답 SCAN] ④

- ④ [장면 4]에서 느끼는 허기는 자연 속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다 느꼈던 배고픔이다. 이것을 회한을 느끼게 하는 배고픔으로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SCAN]

- ① 첫 화면을 흑백 영상으로 처리하는 것을, 유년의 아련함을 담은 ‘흑백 사진’이라는 제목의 느낌을 담아 보려는 제작 의도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은 적절한 반응에 해당한다.
- ② ‘파란 하늘’, ‘몽게구름’ 등의 소재에 색채감을 입힌 것을 유년의 기억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려는 제작 의도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은 적절한 반응에 해당한다.
- ③ 유년 시절의 한 장면을 작품 속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구체화한 것을 청각, 시각 등의 다양한 효과를 활용하는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것은 적절한 반응에 해당한다.
- ⑤ 평화로웠던 유년에 대한 회상을 원경과 근경에 형상화된 모습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것은 적절한 반응에 해당한다.

4.

[정답 SCAN] ⑥

- ⑥ ㉠은 ‘풍금 소리’(청각)가 눈꺼풀 위로 쌓이는 모습(시각)을 감각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청각을 시각화하는 이런 심상 제시 방법은 물놀이에 지쳐 깜빡 잠이 든 유년 시절의 화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화자의 현재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은 미루나무와 하늘, 몽게구름, 냇물 등의 모습을 다양한 시각적 심상을 동원하여 표현하고 있고, ㉢은 의인화된 존재인 ‘착한 노래’가 큰 강까지 흘러간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물놀이를 하는 시간이 상당이 경과되었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있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한 ㉣은 미루나무와 동화된 화자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고, 화자의 혼잣말을 마치 대화체 진술처럼 반복한 ㉤은 물놀이에 한껏 몰입해 있는 화자의 눈에 비친 냇가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5.

[정답 SCAN] ④

- ④ (나)는 농촌의 권태로운 일상을 아이들의 유희 행위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그려 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작가가 도시인의 시각에서, 농촌의 권태로운 일상을 비판한 점이다. 작가가 소리를 지르며 뛰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조물주에게 대한 저주의 비명’을 떠올리거나, 똥누기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며 ‘풍경과 완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작자의 비판적인 논평이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6.

[정답 SCAN]

- ㉠: 아이들의 유희가 농촌의 단조로운 풍경과 권태로운 일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도시인의 시선이 잘 드러나 있음.
- ㉡: ‘똥 누기’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기상천외한 행동과 얼굴 표정에 초점을 맞춰 웃음을 자아내고, 조물주라는 존재를 끌어들여 아이들의 놀이에서 느낀 화자의 절망과 절규를 재치 있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음.
- (나)는 수필 문학의 형식적, 표현적, 내용적 특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작품이다. 도시인의 농촌 체험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되, 자신의 개성적인 시각을 통해 농촌의 권태로운 일상을 비판적으로 그려 내고, 위트와 유머를 동원하여 독자에게 경쾌한 웃음을 유발하는 점도 주목된다.